

# 전북 광역·기초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

## “의회의 임무 충실히 하겠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시의회 등 전북 도내 기초의회가 최근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는 김광수(55·전주 2선거구) 의원을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하고 황현(53·익산 3선거구) 의원을 제1부위원장, 이상현(45·남원 1선거구) 의원을 제2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전주시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박현규(49·사선거구) 의원을 의장으로, 김명지(51·차선거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군산시의회는 의장에 진희완(44·사선거구) 의원을, 부의장에 한경봉(44·사선거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정읍시의회는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3선인 우천규(52·사선거구) 의원을 의장으로, 3선 박일(53·바선거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남원시의회는 제190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3선 장종환(57·라선거구) 의원, 부의장에 3선 박문화(51·다선거구) 의원을 선출했다.

순창군의회는 최초로 여성 의장을 배출했다. 순창군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이기자(57·순창 가선거구) 의원, 부의장에 전계수(57·나선거구) 의원을 선출했다.

고창군의회는 의장에 이상호(54·다선거구) 의원, 부의장에 조민규(47·가선거구) 의원을 선출했다.

부안군의회는 임기태(67·가선거구) 의원을 의장에, 김병효(56·라선거구) 의원을 부의장에 각각 선출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



전주시의회 박현규 의장



군산시의회 진희완 의장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장



남원시의회 장종환 의장



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장



고창군의회 이상호 의장



부안군의회 임기태 의장

## 남원 운봉고원서 신라 때 석실묘 출토...백제·가야와의 관계 파악 자료

### 운봉읍 북천리...6세기 추정

### 석곽묘·주거지 등도 발굴돼

남원 운봉고원에서 처음으로 신라후기 석실묘가 확인됐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박영민)이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에 위치한 고분(3호분)을 발굴 조사한 결과 삼국시대 황구식 석곽묘 1기와 황구식 석실묘 1기,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가 확인됐다.

삼국시대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다투던 백제-가야, 백제-신라간 관계와 남원 운봉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조사지역의 동쪽 사면에서 남원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황구식 석실묘가 확인됐다. 조사단은 고분의 형태나 축조기법, 출토 유물(투창이 있는 고배) 등을 감안해 축조 시기를 대략 6세기 후반 무렵으로 추정했다.

이는 신라가 백두대간을 넘어 섬진강 유역권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크다. 현재까지 운봉고원지대와 남원지역에서 백제, 가야계 유물이 출토된 사례는 많지만, 신라계 고분이 조사된 사례는 없었다.

또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 황구식 석곽묘는 가야계 고분의 후기적 모습과 매우 유사하며, 제작시기는 대략 6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황구식 석실묘.

## ‘홍보성 기사’ 금품 제공 부안군의원 5명 무더기 벌금형

### 80만원 선고...직위는 유지

### 언론사 대표는 징역 10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안군의원 5명이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이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지역언론사 대표에게는 실형

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지난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며 부안지역 언론사대표 박모(75)씨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부안군의원 박모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5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수

예비후보 1명, 도·군의원 예비후보 11명에게도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거 홍보성 특집 기사를 써주고 평생 구독료 명목으로 이들 17명에게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들과 지역신문 대표

박씨의 관계, 금품 교부 시기, 기사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에 비춰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위해 구독권 구매를 가장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8명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선거를 경제적 이익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박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후보자 신분으로 홍보성 기사에 대해 금품을 준 피고인들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전남 소식



미국 어학연수길에 오르는 나주지역 학생들이 14일 강인규 나주시장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나주 초·중생 30명 미국 어학연수

### 한달간 워싱턴주 벨리대학서

나주지역 초·중학생 30여 명이 미국 어학연수 길에 올랐다.

나주시는 “14일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참가자들이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워싱턴주 웨네치시 벨리대학으로 한달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고 밝혔다.

연수단은 나주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 10명과 중학교 2학년생 20명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연수단은 오는 8월 10일까지 4주 동안 기숙사와 홈스테이를 하면서 오전에는 어학교육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스포츠와 음악, 문화활동 등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번 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가 시험 등을 거쳐 선발됐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어학연수비용은 전액 시에서 지원했고,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참가 학생은 경비 일부를 자부담했다. 박은혜(노안중) 양은 “TV에서만 봤던 미국에 직접 간다는 설레임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많이 보고 열심히 배워서 좋은 추억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강인규 시장은 “해외어학 연수는 공부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인재를 함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원을 학교별로 안배해서 골고루 연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scn@

## 나주 금성 생태물놀이장 25일 개장

### 금성산 자락...내달 24일까지 자연석·계곡물 등 천연 환경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 자락에 위치한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오는 25일 개장해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은 부지 1만㎡에 2000여㎡ 규모의 물놀이장을 비롯해 쉼터와 테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용객 연령대에 맞춰 3개의 풀장을 갖추고 부지조성 과정에서 채취한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해 자연경관 훼손

을 최소화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을 사방담에 저장, 필요시 물놀이장에 공급하는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했다.

또한 차량 10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과 샤워장, 화장실 등을 갖췄다.

나주시 최명수 산림공원과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용객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 만큼 이용객들이 공중질서를 잘 지켜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jung@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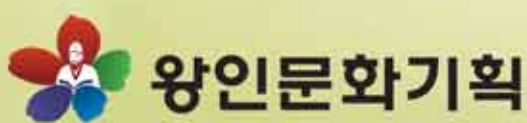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